



Wildflower Letter

들꽃편지 686

2026.3.20.춘분

<https://cyw.pe.kr>

## 도로아미타불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 14:13-14)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할 때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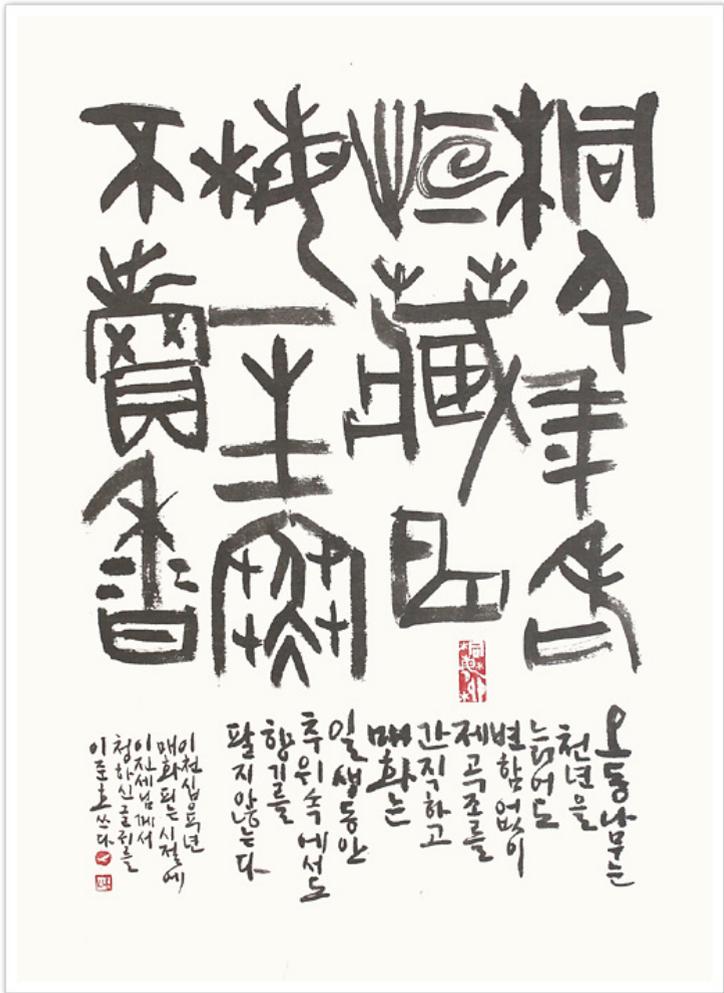
불교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미타불(阿彌陀佛)’이라고 하는 부처가 중생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부르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틈만 나면 ‘나무아미타불’하고 염불을 외웁니다. ‘나무’는 기독교의 ‘아멘’과 비슷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무아미타불’을 백만번 천만번 불러도 아무 소용없다는 뜻의 ‘도로아미타불’이 있습니다. 도로(徒勞)라는 말은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렸다, ‘헛된 수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담지 않는 ‘나무아미타불’은 ‘도로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도 ‘마음’을 담지 않고 건성으로 하면 그것도 ‘도로아미타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2:5)라고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 대한 순명(順命)입니다.(빌2:6-11) 순명이 없는 ‘예수님 이름으로’는 ‘도로아미타불’입니다.

♥불을 타는 중인 최용우 올립니다.





글씨/이준우

##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삶과 죽음을  
그리스도께 내어준 사람이다.  
내가 나의 논밭을 어느 교회에 기증했다면  
그날부터 나에게서는 논밭이 없다.  
없어야 한다.  
기증한 뒤에도 여전히  
논밭의 소유권과 경작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기증한 게 아니라 우롱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  
주장할 '나'가 없는 사람이다.  
'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 없는 사람을 심판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남을 심판할 수도 없고  
남한테서 심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 회개77 기도하겠습니다

CTS를 통하여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잠시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뻔뻔하게 잘하는 거짓말이 있는데  
1위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정말 그렇구나.’ 고개를 끄떡이다가  
내가 바로 그 장본인임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 보니 목회를 할 때 성도님들이나 지인들을 만나  
상담이나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다는 말은 습관적이었습니다.  
기도하겠다는 말은 인사치레였습니다.

“지나간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회개하지?”  
아무튼, 성령님이 알려 주시는 대로 또 회개 해야겠습니다.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셧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셔유?”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 같은 생각

순간 안해와  
똑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참 신기하다.

당신과 나는  
확실히 부부의  
연(緣)인가 봐  
허허허 웃는다.

최용우 제12시집<일상의 기적>



최용우 1-17시집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짝 숨어있는 소중한  
기적의 순간들을 찾아봐요

### 일상의 기적

최용우 지음  
210쪽(컬러)15000원 펴플



**최신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 詩편으로 쓴 詩편시

최용우 지음  
404쪽(컬러) 27000원 펴플

## 죽음의 기원에 대하여



### 369.그리스도교인이 부활한 뒤의 육체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의로운 이들의 육체는 병이나 늙음을 피하려 먹는 어떤 나무 열매도 필요치 않으며 다른 영양소 없이도 굶주림이나 목마름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확고한 영생불멸이라는 선물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능력이 있으므로 원하면 먹을 수 있다.

### 370.육의 몸과 영의 몸에 대하여

살아 있는 영혼(anima)을 지녔으나 생명을 주는 영(spiritus靈)을 지니지 못한 몸을 ‘영혼을 받은’(animale) 몸이라 하고, 생명을 주는 영을 받은 몸들은 ‘영적인’(spirital)몸이라 부른다. 영적인 몸들은 생명을 주는 영을 지녔기 때문에 육(肉)의 짐스러움과 타락은 면하지만, 육체라는 실체는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때 인간은 지상에 속하지 않고 천상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는 흠으로 만든 육체가 계속해서 육체로 남을 뿐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은혜로 하늘나라에서도 살기 알맞게 되기 때문이다. 그 타고난 본질은 사라지지 않고 그 성질만 바뀐 그런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 인간은 흠으로 만들어진 땅의 존재로서 살아 있는 영혼을 지녔으나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는 아니었다.(고전15:45).

### 371.아담에게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입김과 주님이 제자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그제야 그는 생명 있는 영혼이 되었다”(창2:7) 이 말씀을 너무 성급하게 풀이하여, 그때 최초의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게 아니라 영혼은 이미 그의 안에 있었는데 성령으로써 살아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으라”(요20:22)하신 말씀을 들어서 예수 부활의 시점에 이루어진 일이 저 옛날 창조의 시점에서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창2:6) ‘하나님께서 땅 위의 흠먼지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다.’(창2:7) 수분과 흠먼지가 섞여 진흙처럼 되었던 것이다. (계속)

## 서로(2)



### 15. 서로 화답하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화답하며’ -에베소서5장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합니다. ‘서로 화답하며’를 ‘모두 같이 부르십시오’(공동), ‘서로 이야기하며’(쉬운), ‘노래를 부르십시오’(현대어)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서로 화답하며’는 초기 그리스도교 예배 때 시편이 낭송되거나 교독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전통을 따라 오늘날에도 예배 순서에 ‘성서 교독’이 있어서 인도자와 회중이 교대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로 화답한다’는 말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모두 서로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교회 찬송은 모두 함께 어울려서 화답하는 합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 인도자가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큰 목소리로 리드를 합니다. 더욱 목소리가 좋을수록 자신의 음성을 귀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찬송 인도가 인도자의 독창회가 되면 안 됩니다. 마이크를 통해 들려오는 인도자의 강한 목소리는 공동체의 소리를 망가뜨립니다. 인도자는 마이크에서 멀리 떨어져 속삭이듯 찬송해야 하며 튀지 않고 회중의 소리에 파묻혀야 합니다.

그렇게 누가 인도하는지 모를 정도로 자신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주위 사람들의 소리와 어울림을 느낄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의식’이 생깁니다. 아울러 높은 천정

과 공간에서 울리는 잔향을 들으면서 우리의 찬송이 곧바로 하늘 위로 상달되는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화답하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8304)

## 16. 서로 친절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에베소서4장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친절하기 위해서'(32절) 악독, 노함, 분노,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의를 버려라.(31절)고 합니다.

'친절'이란 얼굴에 함박웃음을 짓고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상대방을 왕처럼 모시는 것일까요? 정말로 그것이 친절이라면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인사 마네킹'이 사람보다 훨씬 더 친절할 것입니다. 그 '인사하는 여자 마네킹'은 문 앞에서 서서 정확하게 1분에 한 번씩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아주 친절하고 애교섞인 목소리로 "어서오세요.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를 반복합니다.

친절이 무엇인가? 로마서2장4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런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현대어성경)에서 '따뜻한 마음'과 '친절'이 같은 어근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신자들은 그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한다면서 억지로 얼굴에 씌운 미소 짓는 태도는 웃기는 가식입니다. 진짜 친절은 서로에게 악독, 노함, 분노,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친절한 것입니다. (8305)

## 17. 서로 동서하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용서하며' -에베소서4장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용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에 주류 종교인 유대교로부터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했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버

림받고 오해받는 것에 익숙한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을 다 받아 누리다가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눅 23:34)

부유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얻고 풍족하게 자란 아이들이 커서 정말 행복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받는 것에 익숙하고 작은 고난도 잘 견디지 못하고 희생과 섬김과 자신을 주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남을 용서할 줄도 용서를 받아들일 줄도 모릅니다.

오늘날 저 강남의 부유한 기독교인들을 보면 어릴 적 부유한 가정에서 풍족하게 자란 이기적인 아이들 같아 보입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주는 것이나 남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미숙한 모습을 봅니다. (8306)

## 18. 서로 복종하고

교회 공동체는 ‘피차(서로) 복종하라’ -에베소서5장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서로) 복종하라.”고 합니다. ‘복종’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군인은 상관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복종하거나 불복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자기보다 계급이 높으면 무조건 ‘상명하복(上命下服)’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군대에 그런 위계질서가 없다면 군대 조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피차(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제한 말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엡5:24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고(엡6:1),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엡6:5-8) 성경은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특정한 권위 체계를 주권적으로 정해서 질서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6장은 ‘종과 상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종종 직장에서 상사가 지나친 ‘복종’을 강요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일터는 노예제도가 시행되던 로마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와 환경이기에 ‘복종’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여 적용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뒷전에 가서는 딴 짓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행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과 똑같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십시오.”(엡6:6)

교회에서의 ‘복종’은 높은 권위에 굴복하는 ‘복종’이 아니라 누가 더 섬기나 ‘섬김의 복종’입니다.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 파벌싸움이 시작됩니다. (8307)

## 19. 서로 용납하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용납하고' -골로새서3장13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1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아 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할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새롭게 하여”(공동번역 골3:12)

상대방에게 명백한 죄가 있다면 그 죄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지 그것을 '용납' 하면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 성격, 자라온 환경, 개성, 경험 같은 것이 달라서 의견 차이가 나는 문제들은 서로 인내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쌍둥이도 성격과 개성이 전혀 다른데, 완전 판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더 다양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 짜증을 낸다고 해서 그를 공동체 안에서 추방해 버리지 말고 그 짜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며 자신은 변화를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용납하기만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 미워해”하면서 왜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남아있으려 하지 않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는데 그것도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많이 참고 용납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8308)

## 20. 서로 가르치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가르치고' -골로새서3장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골3:16)’라고 합니다. ‘가르침’과 ‘권면’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 ①가르침은 영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고 ②권면은 도덕적인 교훈과 동기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은 가르침이고 어떤 말은 권면이 되기도 합니다.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이가 많거나 직분자라고 해서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한 사람이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자신의 현시적(現時的), 영적임재(靈的臨在)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친밀함이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풍성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신자들 사이에 사랑이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된 공동체에는 그리스도의 말씀도 풍성하게 내주합니다.(마18:19-20) 신자가 서로 사랑 안에 연합하여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여 얻는 지혜의 부요함에 이르게 됩니다.(골2:2) '가르치며 권면'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과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8309)

## 21. 서로 권면하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권면하고' -골로새서3장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부르며'(골3:16)라고 합니다. '가르침, 권면, 시와 찬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주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가르치며 권면하고'는 '지혜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나 권면도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하면 '부작용'이 생기며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며 실패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은 말씀의 지혜도 함께 있기에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상담'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인생 문제를 상담이라는 학문으로 해결해주는 일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문제'까지도 상담학적인 기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보면서 상담이라는 것은 매우 '인본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중심상담, 정신분석상담, 인지행동치료같은 상담 기법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함이 잘 되는 공동체는 서로 어울려 마음에 감사함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8310)



## 22. 서로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데살로니가전서3:12절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살전3:12)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한 마디로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1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으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22:35-40)라고 하십니다.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전13:4-8)

서로 사랑하되 '더욱 많아 넘치게'(살전3:12)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그 사랑이 비신자들에게까지 흘러넘쳐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말뿐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8311)

## 23. 서로 위로하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위로하고' -데살로니가전서4장 18절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4:18)고 합니다. 실의에 빠진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라던가 "시간을 두고 지켜봅시다." "힘내세요. 더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이다."라며 실망하고 시험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장엄하게 묘사한 다음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리자'라는 말로 서로서로 위로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자신의 영적 부패와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5:4)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와 세상의 불의를 보고 깊이 슬퍼하며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를 주신다는 역설적인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오늘은 그 날에 하루 더 가까워진 날이라는 것을 서로서로 상기시켜 주면서 서로서로 '위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세상의 불의를 멀리하고 슬퍼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22:20) (8312)

## 24. 서로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덕(德)을 세우고' -데살로니가전서5장11절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살전5:11)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키프로스 출신인 레위 사람 '요셉'은 따뜻한 성품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교회를 세웠으며, 사울(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여 일꾼으로 임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권면하여 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 '바나바'라고 이름까지 바뀐 부를 정도였습니다. 바나바는 권면하여 덕을 세우는 모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서로 권면하는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해야 합니다. 성경에 여섯 번 나오는 '권면'이라는 단어는 모두 절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이 골고루 성장해야 비로소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면하여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직분이 '권사(勸師)'입니다. 권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 신앙에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여 덕을 세울 정도의 연륜이 있는 신자에게 주는 직분입니다. 겐그리아교회의 뵈뵈,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가 성경에 나오는 권사입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엔 남존여비(男尊女卑) 때문에 남자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곳에 가가호호 방문하여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교인들을 심방하고 그들의 형편을 들어 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부인'이라는 권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권사'는 그냥 호칭으로만 남은 직분인 것 같습니다. (8313)

## 25. 서로 화목하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화목하고' -데살로니가전서5장13절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살전5:13)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불평하고 비판하고 없는 소문을 만들어서 퍼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강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고 지도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서로 화목하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평등한 관계로 서로 화목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그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이라느니 하는 되지도 않은 거짓말로 권위를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인들은 목회자를 무시하고 목회자의 권면과 지도받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쉬운 살전5:14-15)라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에게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 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벧전5:2)라고 합니다. (8314)

## 26. 서로 선을 따르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선을 따르고' 데살로니가전서5장15절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善)을 따르라"(살전5:15) 라고 합니다. '따르라'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은 '추구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신자들(서로)뿐만 아니라 불신자(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을 따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선을 따르는 것은 쉽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 선을 따르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나와 아무 상관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할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신자들은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 선을 따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14장1절은 우리에게 사랑을 추구하라고 명령합니다. 로마서13장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선을 따를 수 있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는 것이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커피를 사 주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도와주거나 이웃집과 반찬을 나누다거나 식사에 초대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선을 따르는 일은 많은 시간이나 돈을 들이는 일이 아니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하는 일입니다. (8315)

## 27. 서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기도 하고’ 디모데전서2장 1절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딤후2:1)라고 합니다. 야고보서5장16절도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5:16)라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양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한 이유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신성모독자 두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니 많은 신자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딤후1:20)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다. (딤후2:3)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 지도자들의 부정적이고 독단적이며 전혀 덕이 되지 않는 처신을 보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교회가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안 나가는 신자들을 ‘가나안(안 나가) 신자들’이라고 하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딤후2:4) 하나님은 신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특히 불신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기도하되 대충하지 말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①간구는 탄원기도입니다. ②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이고 ③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④감사는 기도가 응답 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서원기도, 작정기도 같은 것입니다. (8316)







세종수목원 제라늄 에브카 (사진:최용우)

## 의미 있는 일

원시인들은 육체적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 일에만 정신력을 집중하며 살다가 죽었다. 단순히 사냥하고 먹고 자는 일에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사용했다. 그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현대인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육체가 해야 하는 힘든 일을 대부분 극복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하는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의미 있는 일이란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하고 모두를 위해 유익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의미 있는 일은 자기가 찾아야 한다. 평생토록 자신의 '의미 있는 일'을 찾지 못하고 육체의 일에만 집중하다가 죽는 가련한 현대 원시인들도 많다.

## 왕과 사는 남자

오랜만에 영화 한편 보고 왔다. 거의 2년만인 것 같다. 그녀가 날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에잉~ 볼 것도 없네” 하면서 겨우 선택해서 켜 놓은 프로그램 <삼시세끼>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삼시세끼>를 보고 또 보고 재탕, 삼탕, 사탕, 오탕...을 하다 보니 이제 ‘유해진과 차승원’은 아주 한 가족처럼 친근해졌다. 유해진이 영화를 찍었다고 해서 그림 “가족이니까 봐주는 것이 의리지...” 해서 2년만에 영화관에 갔다.

영화 개봉하는 날 아침 일찍 가서 첫회 상영 ‘조조영화’를 봤다. 단종이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영월의 ‘청령포’가 개발로 훼손되어 영화는 청령포와 비슷한 다른 지역에서 촬영되었다고 한다.



## 100번째 책

<하늘일기>가 나왔다. 1월 30일에 교보 문고에 발행신청을 했더니 드디어 통과가 되었고 오늘 책이 나와서 판매를 시작한다. 일기 시리즈 17번째 책이고 396쪽 울컬러에 27000원이다.

개인 저서로 100번째 책이고 올해 첫 책인 따끈따끈한 신간이다. 2025년 내 삶의 작은 행복들 <하늘일기> 그동안 책방 창문을 열면 벽만 보이는 곳에서 19년 동안 면벽수도를 하다가 이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창 밖으로 구름만 보이는 16층 하늘 꼭대기이다.

어느날 1층 현관 앞에서 위를 올려다보니 내 눈에 하늘로 올라가는 ‘야곱의 사다리’가 보였다. 그 끝에는 하늘이 있었다. 알고보니 나는 야곱의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구나.(창28:12) 내가 앉아 있는 바로 위엔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발바닥 밑에 있구나!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성숙함, 충족함을 상징하는 특별한 숫자이다. 백일(100일), 100세, 100점(만점), 100%(전부)처럼 완벽한 상태이다. 숫자 100은 단순한 수치 그 이상으로, 삶에 있어 성취와 완성, 건강을 기원하는 특별한 숫자이다. 드디어 내가 그 100에 도착했다. 그냥 나 혼자 울컥하면서 자축!



## 고양이 생존

인간과 밀접한 동물 중에 유일하게 성경에 안 나오는 동물은 '고양이'이다. 고문서에는 '괴'라는 단어가 나온다. '괴'가 '괴양이' '괘이' '고양이'가 되지 않았을까? 또 '고이'가 나오는데 고양이(猫)를 뜻한다고 한다.(위키백과)

야생 고양이는 1년에 2번 새끼를 낳고 새끼의 75%가 6개월 안에 죽는다. 이 세상은 고양이들이 살아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세상이다. 고양이는 무리생활을 하면서도 각자의 일정한 영역이 있어서 독립적이다. 먹이가 넉넉하면 싸우지 않는데, 먹이가 부족하면 엄청 싸운다. 야행성 동물이라 주택가에서 밤에 고양이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끼치기도 함.

반려동물로 키울 때 사람들은 고양이를 기른다고 생각하지만, 고양이는 '이 인간과 내가 살아준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 책 교정하기

책 원고를 다 쓰면 약 90% 정도의 가편집 상태에서 1부를 프린터 하여 제본한다. 그러면 그녀가 1차 교정을 꼼꼼하게 봐준다. 내용을 일일이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팩트 체크도 하고 성경 구절은 제대로 들어갔는지 찾아가며 확인을 하는 '교열'까지 해서 수정할 부분에 빨강 볼펜으로 '돼지꼬리 땡' 표시를 한다.

교정을 본 책은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레이아웃을 입히고 목차색인을 만든 다음 최종적으로 내가 '정독'하면서 10%를 채워 마무리를 한다. 그리고 교보문고에 출판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책이 되어 세상에 나온다.

지난 겨울에 아내가 마치 숙제를 몰아서 하듯 밤낮으로 집중하여 8권, 쪽으로 하면 2600쪽이나 교정을 봤다. 너무 고생을 해서 얼굴이 훌쭏해진 요 이쁜 마누라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어쨌든 올해도 1달에 1권씩 열심히 책을 출판할 것이다.



## 엄마와 딸

자식들이 성장하여 집을 떠나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게 될 때, 부모가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 상태를 상담학에서는 '빈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이라고 하며 모든 부모는 크거나 작게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다.

누군가가 내 딸 옆에 붙어서 지켜주는 것을 보면 부모는 뭔지 모를 든든한 마음과 동시에 이제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낀다.

자녀들이 독립해 가정을 떠나는 순간, 부모는 일생일대의 큰 변화를 맞이한다. 오랜 시간 자녀와 함께한 일상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아빠들은 비교적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엄마들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

아내도 천상 엄마이다. 평소에는 쿨한 척하더니 막상 현실로 닥치니까 처음에는 현실 부정, 그리고 체념, 그리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밟고 있다.



## 만남

익산 한마음교회 권혁성 목사님과 김은희 사모님이 설 명절 마지막 날 우리 집에 왔다. 이중직 목회자라 평일에는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모처럼 쉬는 날 황금같은 시간을 쪼개어 달려온 것이다.

오래된 만남일수록 서로 공유하는 추억이 많다. 권목사님과는 88서울올림픽 열리던 해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결혼, 자녀들 낳고 키우고 이제 자녀 결혼을 앞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Old friends and old wine are best)'는 서양 속담이 있다. 오래 숙성된 포도주가 향미도 깊어지고 가치도 높아지는 것처럼, 오래 사귀 친구일수록 우정은 더욱 깊어지고 삶은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뜻이다. 앞으로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더 오래 묵어서 얼마나 비싼 포도주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농담반 진담 반으로 다 함께 모여서 살자는 말을 하고 있다. 말이 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익산에서 출발한다는 전화를 받고부터 푹푹거리는 것 같았었는데, 냉장고를 털어서 '집밥'을 거창하게 한 상 차렸다. 한 시간만에 거의 미술랭 셰프의 레스



또랑을 만들어 놓았다.

함께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다. 그냥 사는 이야기나 자녀들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평범한 것들이다. 이렇게 누군가와 만남을 갖고 나면 나에게서는 기도 제목이 생긴다. 마치 테이블 위에 꽃 한송이 꽂히듯.



## 집 한 채씩 사 왔다

한옥마을 갔을 때 식구들이 집을 한 채씩 사 왔다. 여러 가지 그림이나 소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 가게에 들어갔을 때, 집 모양의 냉장고 마그넷을 보고 “야~ 우리 오늘 집 한 채씩 사자” 하여 각자 자기가 맘에 드는 집을 하나씩 골랐다.

①큰딸은 지붕이 세모꼴이며 이층 창문이 있는 유럽풍의 집을 가장 먼저 골랐다. 집 모양이 가장 예뻐다.

②작은딸은 “나는 무조건 큰 집이야.”하며 공간이 가장 넓어 보이는 별장같이 생긴 집을 골랐다.

③아내는 “이 집 지붕이 이쁘지 않아요?” 하면서 지붕이 예쁜 집을 골랐다. 지붕을 보고 집을 고르다니... 취향이 참 독특하다.

④나는 다른 식구들이 골라가고 남은 집 중에서 다른 세 집과 어울리는 집으로 하나 골랐다.

그렇게 식구 수대로 사 온 집을 냉장고에 착착 붙이더니 “아빠가 대표로 우리 각자 집을 한 채씩 진짜로 살 때까지 이거 보고 왔다갔다 하며 날마다 기도 세게 하세요.”라고 한다.

인간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세 가지는 의식주(衣食住)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았으니 가장 필수적인 ‘의식주’만큼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무조건 뒷받침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 똥꼬가 뒤에 있어

페이스북에 하루에 '감사'를 다섯가지씩 '감사노트'에 적는 '오감사' 모임이 있다. 혼자 하면 지속성이 없기에 회원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자기의 감사를 나눈다. 나는 회원은 아니지만 가끔 모임에 기웃거리며 다른 사람의 '감사'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오늘은 나 혼자 데굴데굴 구르며 웃은 '감사'가 있었다. "똥꼬가 뒤에 있어 감사합니다." 만약 똥꼬가 앞에 있으면 자기가 자기 똥이 나오는 것을 봐야 하니 얼마나 더럽겠느냐... 화장실에서 똥을 누면 똥이 뒤로 팍 튀어나가는 것이 감사하다고 ㅎㅎㅎ 아이고 상상해 버렸다. 똥이 쪽 나오는 장면을...ㅠ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똥꼬가 뒤로 뚫려있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진짜 감사한 일이다. 나는 오늘도 예쁜 모양의 똥을 누려고 채소와 섬유질을 많이 먹었다.



## 선교사님 생선

시청 앞 스타벅스 지나가면서 그녀가 갑자기 생각난 듯 "나 스타벅스 쿠폰 2장 있는데... 내 생일 때 일본에서 날아온 선물."이라고 했다.

"그래? 당신은 커피 못 마시니 그럼 내가 대신 마셔줄게."라고 해서 그녀의 핸드폰을 뒤져 카카오톡 선물상자 안에 있던 일본 이재익 선교사님이 보낸 보물을 찾아냈다.

아메리카노 두 잔과 부드러운 생크림 카스텔라를 사 왔다. 케익은 아내가 먹고 나는 커피 두 잔 득템(得item)했다. 야훗!

"올해부터는 우리도 생일인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이모티콘만 날리지 말고 뭐라도 하나씩 선물을 하는 게 뭐며?" 좋아 좋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 어찌고 저찌고..

했지만 아마도 커피 한잔 다 마시기도 전에 까맣게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이젠 나의 기억력도 내가 믿지 못할 나이가 되겨. ©최용우



□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마5:1)

#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736회 비학산317 (일출봉252m) 2026.2.20

▲제737회 내장산 연자봉(675m) 유군치

내장산 다녀왔다. 최고봉은 신선봉(763m)인데 이번엔 가다가 중간에 하산했다.

내장산 입구 바리케이트가 살짝 비켜진 사이로 들어가 동구리 휴게소까지 차로 진입하여 휴게소 옆 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9시 15분에 '동구리교' 다리를 들머리로 출발 동구리 > 유군치 > △장군봉(696m) > △연자봉(675m) > 케이블카 타는 곳 > 전망대 > 내장사 > 동구리 도



척. 등산 시간 3시간, 운동 거리는 6.2km를 최용남과 함께 걸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망해봉 불출봉 연지봉 능선에 구름이 넘나드는 환상적인 장면을 보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흥얼거렸다. 과거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애국가가 흘러나왔는데 그때, 애국가의 배경화면 장면이 바로 저 산봉우리라고 케이블카를 타면 안내원이 알려 준다.

중간에 너털 구간이 있어 종아리가 조금 아팠다. (2026.2.27. 최용남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 ①꽃봉우리 속에봄이 깜짝놀라 튀어나와

춘분 지나간 앞뜰에 사흘간 햇별이 쏟아졌다  
 소녀 젖꼭지 같던 흥매가 참지 못하고 꽃망을 터뜨렸다  
 -『웃는 봄』 홍사성 詩 중에서

땅속에서 지렁이가 꿈틀대고 뗏새는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거실로 들어왔던 화초들을 베란다로 내놓습니다. 밖으로 나온 화초들이 훈훈한 봄별에 화사하게 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은 훈풍이 돌아 다들 웃고 있는데, 오늘도 밤낮으로 포탄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곳이 이 지구 구석 어느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천양희 시인의 시 가운데 '집 어느 구석에서든 울고 싶은 곳이 있어 야 한다'라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전쟁 반대!



## ②표지사진 이야기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은 노란 '산수유'꽃입니다. 둥근 박이 벌어지면서 노란 보석들이 튀어나와 손바닥을 퍼듯이 퍼지면 그 신호에 따라 세상이 금새 푸르러지기 시작합니다. '봄'이란 볼 것을 두리번거리면서 찾기 때문에 '봄'이라고 한 있는데, 볼 것을 찾아 두리번거릴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노란 산수유 꽃입니다. 등산을 할 때도 산길에서 산수유와 생김새가 똑같은 '생강나무 꽃'이 봄에 가장 먼저 눈에 보입니다.

##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누가 예수어록> 632쪽 28000원 2026.3.20.일 출간

101.<시편으로 쓴 시편서> 404쪽(컬러) 27000원 2026.2.27일 출간

100.<하늘일가-하나님의 발 아래>396쪽(컬러) 26000원 2026.1.27일 출간

99.<일상의 여유>(시16) 210쪽(컬러) 17000원 2025.12.23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95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살림 드러내기 -2026.2월 재정결산

2026년 2월(1-28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강경희 고영국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김한빛 박근식 박기순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인숙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전서윌 정효숙 최용남 한주환  
김리회정릉 새벽기도 안디옥교회 함안중앙교회  
24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사역 -인터넷신문 햇별같은이야기 2026.3.20일까지 8339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출판사역 -그동안 102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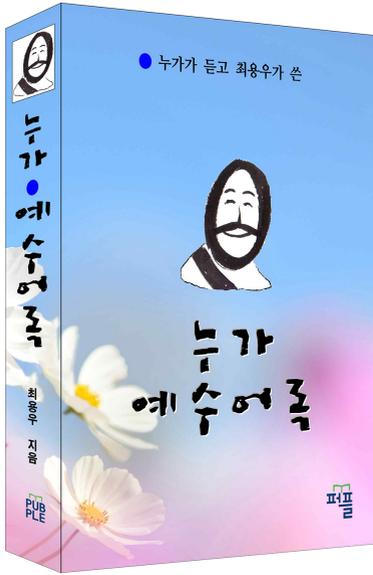
④기도사역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 문서2, 인터넷, 북방선교2, 선교사, 난민)

⑥피정사역(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몇 년 동안 작은 휴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피정사역을 위한 특별 후원헌금 계좌 /우체국 100347-02-096053(이인숙))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새로 나온 책**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에서 빨간색으로 인쇄된 예수님의 말씀 구절만 모두 뽑아 아침마다 한 절씩 묵상하고 주신 은혜와 감동과 능력을 받아 적어 모았습니다.

최용우 632쪽 28000원  
교보문고 퍼플

저는 어느 날 4복음서를 읽다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어록집’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4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마가가 그 어록집을 기초로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어록집과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씁니다. 신약학자들은 어록집이 복음서의 원천이라고 해서 Q문서(Quelle) 라고 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방대한 양의 성경을 모두 묵상할 수는 없으니 그중에 ‘예수님의 말씀’만이라도 모두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빨간색으로 인쇄가 된 ‘예수님의 말씀’ 구절을 모두 뽑아놓고 하루에 한 절씩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텍스트(문자)가 아니라 ‘살아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4:12)라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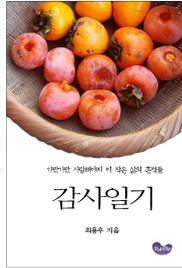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최용우 저서



##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소서. 신자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288편의 성령님과 동행 글 모음  
318쪽 15,000원 퍼플



## 감사일기

가만가만 사랑해야지 이 작은 삶의 흔적들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를 한 개씩 주워 모아 365개를 바구니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별게 다 감사거리라는 것을 아는 재미있는 책!  
392쪽 14,100원 퍼플



## 햇빛일기

힘겨운 떠가는 파란 하늘에 햇빛이 밝아 세상이 보송보송 부드러운 공기를 마시니 또 하루를 참 잘 살았구나. 주변의 사물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보고 사색한 366편의 순수한 기록  
396쪽 14,100원 퍼플



## 행복일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이 세상 곳곳에 다른 모습으로 숨어있는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숨비꼭질처럼, 때로는 놀이처럼 일년 동안 열심히 찾은 365편의 따뜻한 행복글 모음  
396쪽 14,200원 퍼플



## 풍경일기

풍경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걸어가면 거리가 숨을 쉽니다. 발길 닿는 곳엔 연초록빛 번지고요. 햇살도 바람도 그의 등을 기댁니다. 아름다운 수채화 같은 365편의 진실한 이야기  
400쪽 14,300원 퍼플



## 명랑일기

밝고 맑고 유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이야기. 삶이 뭐 별건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읽다보면 저절로 ㅎㅎㅎ 웃음이 지어지는 365편의 명랑한 얘기  
396쪽 15,200원 퍼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썬터(피징) <http://cyw.co.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150 세종시 보람1길12 호려울마을2단지 201동 1608호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WildflowerLetter)제686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